

LS그룹, 소외계층·재해재난 지원 등 글로벌 사회공헌 실천

창립 20주년 맞아 미래세대 후원 확대 행사 대신 어려운 이웃에 기부활동 韓-베 가정 위한 교육·문화지원 강화

LS그룹이 베트남을 비롯한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2일 LS그룹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아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있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기부활동을 진행했다. 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LS그룹 20주년이라는 의미를 담아 우리 지역 사회 내의 희귀질환 아동 20명을 선정해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LS그룹은 창립 이후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벌 개발사업,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재해재난 성금 기부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LS그룹은 지난 5월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가정을 돕는 교육·문화 공인 'LS 드



지난 5월 8일 베트남 하이퐁에서 열린 'LS 드림센터' 개소식에서 (앞줄 왼쪽 세번째) 안원형 LS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그룹

림센터'를 하노이 센터에 이어 하이퐁시에 두 번째로 개소했다. 'LS 드림센터 하이퐁'은 한·베 가정을 위한 미취학아동 돌봄 프로그램과 가족 심리상담, 한국어 교실 등을 운영한다. 컴퓨터·IT 교육과 영어 교육도 제공한다.

LS그룹 관계자는 "베트남 전기·전력 분야에서 1등을 하는 LS가 베트남의 교육 인프라 개선에 이바지하여 서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한 사회적 책무"라며 "이번에 추가로 문을 연 LS 드림센터가 한·베 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교두보 역

할을 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LS그룹은 지난 2007년부터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대학생과 LS 임직원 25명으로 구성된 약 1000여명의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선발 및 사전교육하여 파견을 실시해 왔다.

국내에서는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과학실습 교육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를 2013년에 시작해 올해로 20회째 이어오고 있다.

LS그룹의 각 계열사 또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이다.

LS전선은 폐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3년 LS전선은 고객이 사용한 폐 목재 드럼을 재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온드럼'(ON DRUM)을 구축,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LS일렉트릭은 예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사회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23년 5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LS타워에서 장애인 합창단 '그린 보이스'를 창단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런치 콘서트'를 개최했다. 그린 보이스 합창단은 중증 발달장애 음악인 8명으로 구성됐다.

LS엔트론은 지난 2022년 말, 코피온과 함께 베트남 똘엔광성 반푸 초등학교에서 '5기 해피 글로벌 봉사단'을 진행했다. 봉사단원들은 음악, 미술, 체육, 한국어 관련 교육 봉사나 낚은 벽면 페인트칠, 벽화 그리기 등 노력 봉사와 K-POP 노래, 춤 등 문화공연을 진행했고 교육 기자재용 TV 등을 기부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E1은 전국 21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매년 1억 500만 원을 후원하는 '희망충전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U+

Z세대 위한 멤버십 개선

LG유플러스가 Z세대들과 협업해 멤버십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한다.

LG유플러스는 대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협업 프로젝트 TF를 꾸려 참여형 멤버십 프로그램을 3개월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46명의 대학생 고객이 TF를 꾸려 신규 멤버십 혜택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LG유플러스는 실제 멤버십 혜택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TF 구성원들은 사전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LG유플러스와 함께 실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간다. LG유플러스는 TF와 함께 3개월간 ▲LG트윈스 제휴 유폴투빨 경기 이벤트 ▲수험생을 위한 상영 종료 영화 재상영 및 응원 프로모션 ▲보드게임 카페 제휴 혜택 ▲신규 멤버십 고객 웰컴키트 제작 등 Z세대의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멤버십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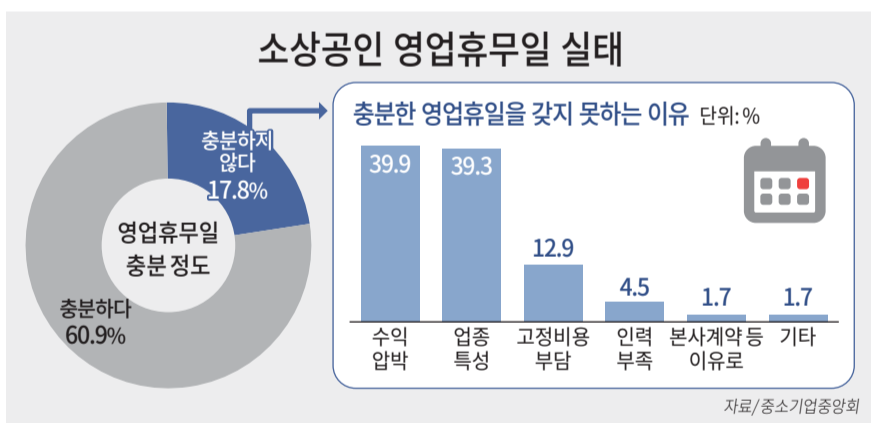
소상공인 “휴무 충분치 않다”... ‘수익 압박’ 등 이유

중기중앙회, 1000명 대상 조사
전반적 노동강도 10점 중 5.92점
“소규모 소상공인 맞춤 지원 필요”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워라벨(work-and-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현재 영업 휴무일 수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은 워라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내놓은 '2024년 소상공인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벨) 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0.9%은 현재 영업 휴무일 수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휴무일이 '없다'(11%)거나 '충분치 않다'(17.8%)는 답변은 종사자

수가 적거나 매출액이 낮은 소상공인에서 많았다.

충분히 쉬지 못하는 이유는 '수익 압박'(39.9%), '업종 특성'(39.3%) 등이 주를 차지했다.

소상공인이 느끼는 사업에 대한 전

반적인 노동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92점으로 '보통'이었다.

하지만 종사자 수가 1~2명(12.9%), 매출액이 1억원 미만(15.3%)인 소상공인은 사업에 대한 노동강도가 '매우 강하다'(10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일과 여가활동 시간의 균형 정도도 평균 5.40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그러나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10.2%는 '전혀 균형적이지 않다'(0점)고 응답했다. 이는 ▲1억~5억원 미만(4.0%) ▲5억~10억원 미만(2.8%) ▲10억원 이상(2.0%)인 소상공인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승호 기자 bada@

OCI,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인산' 공급

핵심소재 기업 OCI가 국내 인산 제조사로서는 최초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인산 공급자로 선정됐다.

OCI는 SK하이닉스의 강도 높은 품질 테스트를 거쳐 반도체 인산제품 공급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OCI가 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반도체 인산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소재 중 하나로,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공정에 사용된다. OCI의 반도체 인산은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까지 모든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범용 소재로 HBM의 성장 및 반도

체 시장 회복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OCI는 지난 2007년 반도체 인산 사업에 진출한 이후, 현재 연간 2만 50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SK이파운드리, DB하이텍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7년간 반도체 인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국내 M/S 1위를 유지 중이다. OCI는 이번에 SK하이닉스를 신규 고객사로 추가함으로써 국내 모든 반도체 제조사에 인산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가 됐다. /차현정 기자

효성첨단소재, 중서 '탄섬' 우수성 알린다

HS효성그룹의 효성첨단소재가 아시아 최대 국제 복합재료 박람회서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TANSOME)'의 우수성을 알린다.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는 1/4이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강한 섬유로 자동차, 에너지, 레저 분야 등 다방면의 미래 첨단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오는 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 컴포지트 엑스포(China Composites Expo 2024)'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첨단소재는 수

소차용 고압용기, 자동차휠, 스포츠용품, 전자제품프레임, 라켓, 전기차용 시트크로스멤버(Seat Cross Member, 시트 프레임과 자체 바다 프레임 고정 부품) 등 '탄섬'으로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고객들과 미팅을 진행한다.

'차이나 컴포지트 엑스포'는 상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국제 복합재료 산업 박람회로 지난 1988년 첫 개최 이후 성장을 거듭해 복합재료 분야 최고 수준의 박람회 중 하나로 꼽힌다. 효성첨단소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섰다. /차현정 기자

한화

폴란드서 '장보고' 전시 프랑스·독일, 수주 경쟁

한화가 최첨단 잠수함인 '장보고-III(KSS-III)'를 앞세워 프랑스·독일 등과 폴란드 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방산3사는 이달 3~6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MSPO는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동유럽 최대의 방위산업 전시회다.

폴란드의 차기 잠수함 사업(오르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오션은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잠수함을 전시한다. 독자 설계한 3000톤급 '장보고-III'는 중여뢰와 대함·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한 어뢰 발사관, 탄도 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발사대가 기본 장착됐다. 한화오션은 잠수함의 유지·보수·정비(MRO) 기술을 폴란드 업체들에게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MRO 현지화'도 검토 중이다.

폴란드 잠수함 수주에 뛰어난 프랑스의 나발그룹과 독일 티센크루해양시스템(TKMS) 등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화는 30년간의 잠수함 실전운영 및 정비, 운영 등의 기술적 장점을 부각시킨다.

정승균 한화오션특수선 해외사업단장은 "장보고-III는 입증된 기술력과 뛰어난 성능으로 폴란드 안보환경에 최적화됐다"며 "폴란드 해군의 현대화에 따른 안보 강화와 현지화 기술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